

#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읽기 교육 개념의 재설정\*

권 순 회\*\*

## 〈차 례〉

1. 들머리
2. 하이퍼텍스트와 읽기 교육
  - 1) 하이퍼텍스트의 기원
  - 2)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특징
  - 3) 하이퍼텍스트와 읽기 방식의 변화
  - 4) 읽기 교육 개념의 재설정
3. 읽기 교육의 모델 구안

## 1. 들머리

전자미디어 시대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하나의 미디어로 통합되는 융합미디어를 이룬다. 이러한 융합미디어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기술은 바로 컴퓨터와 디지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성된 융합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텍스트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정보들을 전방위로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이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근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변화된 미디어의 양식을 이해할 수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 선정 중점연구소 2단계 지원 사업으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과제 "하이퍼텍스트의 이해 교육 연구"로 수행된 것임.(KRF-2002-005-B20013)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화된 미디어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하이퍼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이퍼미디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

하이퍼<sup>1)</sup>미디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하이퍼미디어를 여러 가지 유형의 멀티미디어의 정보, 즉 글, 그래픽, 소리, 말,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Seyer, 1991 : Colkin, 1988 : 김희수, 1995), 컴퓨터 기반 장치(CD-ROM 및 CDI 장치, 무선 개인 단말 장치 등), 텔레비전에 셋톱박스형의 단말을 접속하여 인터넷을 즐기는 웹TV, 차세대 AVPC 등을 하이퍼미디어로 보는 견해(구니아스 도쿠마루, 2000)가 있다.

전자의 개념으로 하이퍼미디어를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간에는 원리상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여러 가지 광디스크 공학, 예컨대 CD-ROM이나 레이저디스크(Laser Disk)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간의 차이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고 본다. 텍스트 이외의 정보 형태들이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하이퍼미디어'라고 한다. 즉 하이퍼텍스트의 내용이 디지털 사운드, 애니메이션, 비디오,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베이스 등인 경우 이를 하이퍼미디어라고 부르는데(Joyce, 1995), 이것은 멀티미디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하이퍼텍스트와 서로 바뀌 쓰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개념으로 하이퍼미디어를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하이퍼텍스트는 정보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컴퓨터 기반 장치(CD-ROM 및 CDI 장치, 무선 개인 단말 장치 등), 웹TV, 차세대 AVPC 등은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미디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데 의견을

---

1) 하이퍼(hyper)는 '연장된'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다. 하이퍼스페이스는 3차원 너머로 연장되는 공간이며, 하이퍼시스템은 비선형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다. 하나의 연결점은 전혀 다른 평면이나 차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연결점에 직접 연결된다. 하이퍼미디어는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혹은 비디오 안에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 준다.(이재현, 2000)

같이 한다.

이와 같이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이퍼미디어를 하이퍼텍스트의 정의를 확장시킨 개념<sup>2)</sup>으로 파악하며, 멀티미디어나 상호작용 멀티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의 비계열적 연결을 통합하는 컴퓨터 기반 환경으로 이해한다. 이때 컴퓨터 기반 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TV, 차세대 AVPC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한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구현물과 방법적 도구 사이의 혼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명확히 하자면 하이퍼미디어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초창기 하이퍼텍스트에 IT의 발달로 소리, 애니메이션, 그래픽, 비디오, 정치화상,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가 혼합된 하이퍼텍스트의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가 IT의 발달로 멀티미디어와 결합하여 생산해낸 구현물이라는 개념의 하이퍼미디어와 컴퓨터 기반 장치(CD-ROM 및 CDI 장치, 무선 개인 단말 장치 등), 웹TV 등을 포함하는 방법적 도구개념인 하이퍼미디어는 혼동되기 쉽다. 학자들이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적 도구로서의 하이퍼미디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현물로서의 하이퍼미디어를 연구한다는 말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미디어라는 용어 대신에 구현물이라는 어감이 내포된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하이퍼텍스트를 인터넷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여 인터넷과 혼동하는 경우이다. 원래 인터넷이란 알파넷(ARPANET)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이다. 랜(LAN) 등 소규모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는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현재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통신망의 집합체가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2) 초창기의 하이퍼텍스트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IT의 발달로 하이퍼텍스트가 글과 그림뿐만 아니라 그래픽, 소리, 말,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상 등과 통합하게 되었다.

역할을 해 준 컴퓨터 통신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읽기 교육을 연구한다는 말은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sup>3)</sup>의 발달은 하이퍼텍스트의 발전을 도왔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찾아낸 정보를 전자 메일이나 채팅, 또는 월드 와이드 웹에 있는 하이퍼미디어 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하이퍼텍스트와 읽기 교육

하이퍼텍스트 읽기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국어교육이 담당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근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변화된 미디어의 양식을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비연속적이고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정보 흐름을 바꾸어 놓은 하이퍼텍스트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읽기 대상물이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매체에 무비판적으로 동조되는 현상을 막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가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배경이 있다.

하이퍼텍스트가 등장하면서 읽기 교육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와 필자 개념의 구분이 달라지면서 읽기 교육이 단순히 이해 교육으로 한정하였던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다. 예를들면,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읽는다고 했을 때 독자는 인터넷 신문 하단에 있는 리플을 함께 읽음으로써 독자 공동체 내에서 신문 기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 리플 작성자가 되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

둘째, 멀티미디어와 융합한 하이퍼텍스트의 변화는 읽기 개념의 변화

---

3) John Markoff는 1995년 11월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넷은 차세대의 매체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윤준수, 2000: 47-48)

를 가져온다. 맥루한(McLuhan, 박정규 역 1997)은 미디어의 변화가 인간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활자시대의 인간은 시각적 인지를 동원하여 짜여진 순서에 따라 메시지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 매체의 출현은 인간이 단지 시각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용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루한은 현대의 인간이 시각단일형에서 복수감각형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읽기의 개념이 매체의 변화와 함께 달라지게 되었다.

셋째,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와의 구분과 일치 속에서 읽기가 발전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접근하게 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서핑이라는 용어나 네비게이터, 익스플로러라는 용어도 정보 여행과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다. 한 동안 사이버스페이스란 지식과 정보를 저장, 유통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 국내 언론사 주도하에 폭넓게 전개됐던 정보화 캠페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른바 '정보 사냥 대회(사이버문화연구소, 2001 : 14)'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이지 '사이버스페이스'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보의 바다에 떠 있는 정보의 사냥에만 급급했을 뿐 바다라는 공간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마치 인류가 삶에 필요한 자원을 캐내느라 자원의 모태인 자연 환경을 돌보지 않았던 어리석음이 재현되는 듯했다.

그런데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사람들은 건조한 지식과 정보의 데이터를 찾기보다는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사회적 교감을 얻기 위해 사이버스페이스에 접속하기도 한다. 감정과 정서가 흐르면서, 현실세계와 구분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와의 구분의 필요성과 일치의 필요성을 함께 찾는 읽기로 발전해야 한다<sup>4)</sup>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하이퍼텍스트의 읽기 교육은 비판적 사고 능력의 신장 차원을 넘

4) 인쇄 매체 읽기와는 달리 인터넷에서의 하이퍼텍스트 읽기를 통한 이해 교육은 가상 공간에서 자유 토론과 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학습자가 서로 참여하는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다.

어 독자 상호간의 협력으로 재창조 사고 능력의 신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이퍼미디어 시대에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창을 열어놓는다.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교육은 지식과 문화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에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새로운 읽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은 의의를 지닌다.

### 1) 하이퍼텍스트의 기원

하이퍼텍스트의 아이디어는 1945년 7월 'Atlantic monthly'에 기고된 부시(V. Bush)의 기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인간 정신이 '연상'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As We May Think)"라는 기사에서 지식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메멕스(memex)'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메멕스는 '일종의 기계화된 개인 파일 및 도서관' 즉 '개인의 책, 기록물을 저장해 두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자유자재로 찾아볼 수 있도록 기계화되어 있는 장치'이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마우스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엥겔바트는 1962년부터 인간 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컴퓨터 도구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인간지능 확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NLS(On-Line System)는 원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점에서 하이퍼텍스트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엥겔바트는 부시와는 달리 인간 정신이 '연계'에 의해 작동한다고 보았다. 연계는 무차별적 연상이 아닌 통제된 연상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65년 '하이퍼텍스트'란 명칭이 넬슨(T. Nelso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지면으로는 쉽게 옮겨 질 수 없는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연결된 문서 혹은 이미지의 집합"을 하이퍼텍스트라 명명했다.<sup>5)</sup>

---

5) 정지영(1998 : 24) 참조

## 2)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특징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sup>6)</sup> 사이의 변천 형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에 주를 다는 형식이 하이퍼텍스트를 설명하기 적합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웹 상에서 텍스트의 블록들, 렉시아<sup>7)</sup>들은 삽화, 지도, 도표, 시각적 디렉토리, 개요 등과 같은 다양한 그래픽 보충물들과 전자적으로 연결된다. 하이퍼텍스트는 상호 연계된 텍스트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텍스트 조각의 단위가 노드이다. 즉 노드는 한번 클릭해서 볼 수 있는 텍스트의 덩어리로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하이퍼텍스트의 기본 단위이다. 링크는 각 노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결 고리이다. 링크는 독자에게 어떤 정보로 이동하게 되는가를 보여 준다. 브라우저는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보여 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구조 지도이다. 일반적으로 하이퍼텍스트는 '노드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텍스트의 총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구조가 가지는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비선형성, 다연결성, 무경계성이 그것이다.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이런 속성은 링크로 말미암은 것이다.

초창기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문서자체에 다른 문서에 대한 연결기능을 갖고 있다. 문서와 문서의 연결을 하이퍼링크(Hyperlink)라고 한다. 따라서 이 연결 기능을 이용하면 문서에서 문서로 직접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검색 시간을 절약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는 그 기능을 확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래의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단순히 다른 문서가 아닌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함께 호출

6)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발상은 부시(Bush)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은 엔겔바트(Engelbart)와 넬슨(Nelson)으로 이어지면서 구체화되었다.(임천택, 2002)

7) 렉시아는 바르뜨(Barthes)가 그의 저서S/Z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하나의 텍스트 덩어리를 말한다.(이재현, 2000 : 94)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되었다.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은 인간 사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텍스트보다는 하이퍼텍스트가 인간 사고의 연상이나 인간 사고의 확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텍스트, 즉 인쇄를 통한 '닫혀있고 완전하며 절대적 대상으로 간주되는 작품'인 책의 형태에서 벗어날 수단을 하이퍼텍스트는 제공해준다. 하이퍼텍스트는 인쇄의 완성물에서 벗어날 수단을 제공해준다. 하이퍼텍스트는 구성된 책이 아니라 구성해 가는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이퍼텍스트는 인쇄보다 더 높은 비율의 비언어적 정보를 포함한다. 비언어적 자료들을 비교적 쉽게 덧붙일 수 있다는 점이 하이퍼텍스트에 비언어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촉진한다. 하이퍼텍스트는 새로운 형식의 상형문자적 글쓰기(Landow, 여국현 외 역, 2001 : 89-90)로 구성되므로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학적 코드뿐만 아니라 문서적, 서지학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또다른 약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두 개나 그 이상의 텍스트 구절을 연결하는 것처럼 언어적 텍스트의 구절들을 이미지들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는 멀티미디어를 포함하게 된다.

하이퍼텍스트는 모순적인 텍스트들과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인쇄된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분리나 단일성을 파괴한다.(Landow, 여국현 외 역, 2001 : 124)

파올러(Fowler)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는 ① 적극적 독자를 전제로 하고 ② 유동적, 중층적이지 고정되거나 단일하지 않으며 ③ 시작이나 종결, 중심과 주변, 안과 바깥이 없다. 그리고 ④ 다중심적이고 한없이 재중심화 할 수 있으며 ⑤ 망을 이루는 텍스트이고 ⑥ 협동적이며 ⑦ 반위계적이고 민주적이다. 곧 여러 가지 텍스트를 하나로 묶어 놓은 덩어리 그것이 하이퍼텍스트인 것이다.(라도삼, 1997 : 138) 텍스트의 체계와 하이퍼텍스트의 체계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 특징의 비교

텍스트의 체계	하이퍼텍스트의 체계
송신자 중심성	이용자 중심성
선형적 흐름	비선형적 흐름
맥락적	맥락의 상실
텍스트 폐쇄성	텍스트의 개방성
시공간의 한계	시공간의 파괴와 하이퍼점프

인쇄 텍스트는 그 외현적 모습에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라면, 하이퍼텍스트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하이퍼텍스트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확장하여 생각하면, 특징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후 HTML문서화하여 웹망에 올려놓았다고 하여 하이퍼텍스트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텍스트 성립을 위한 일차적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이퍼텍스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웹 문서를 섭렵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디자인하듯 편집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편집하는 시점이 하이퍼텍스트의 성립 시점인 것이다.(목영해2001 : 40) 편집에 따른 하이퍼텍스트의 성립은 하이퍼텍스트가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이용된 노드간의 연결(링크) 방식에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은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연합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 위계적 구조 등으로 구분한다.(김희수, 1995 참고) 연합적 하이퍼텍스트는 가장 비구조화된 하이퍼텍스트이고, 위계적 하이퍼텍스트는 가장 구조화된 하이퍼텍스트이다. 연합적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연결된 두 노드가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논리적 관계를 갖지 않고 단지 국부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참고적 연결(referential link)방법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연합적 하이퍼텍스트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것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연합적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무선적 접근을 허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성격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논리적 하이퍼텍스트와 위계적

하이퍼텍스트는 구조화된 모양이나 구조화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양자가 모두 조직적 연결을 이용하여 하이퍼텍스트를 구조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조직적 연결은 두 노드간의 논리적 관계를 기초로 노드들을 연결하여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거나 더 위계적인 나무형태의 하이퍼텍스트를 형성하게 된다. 사실상 연합적 하이퍼텍스트와 위계적 하이퍼텍스트를 구조화의 정도라는 기준에 비추어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놓는다면 논리적 구조는 그 연속선 위의 중간 지점에 머무르게 된다. 연합적 하이퍼텍스트는 망구조<sup>8)</sup>에 가깝고 위계적 하이퍼텍스트는 격자구조, 순차구조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요즘 인터넷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의 구성은 연합적 하이퍼텍스트와 위계적 하이퍼텍스트 중 어느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혼합형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의 <그림1>과 <그림2><sup>9)</sup>에 나타난 것처럼 정보를 검색하다가 흠으로 돌아오기 쉽도록 구성된 것을 보면 혼합형의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희수(1995)에서는 위계적 하이퍼텍스트가 연합적 하이퍼텍스트보다 인지오류를 적게 초래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견해를 뒤엎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하이퍼텍스트 구조는 인지 오류의 증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구조에 대한 학습보다는 학습자가 하이퍼텍스트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느냐의 문제<sup>10)</sup>가 이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8) 배석한(2000 : 23)은 하이퍼텍스트의 정보 구조 측면에서 '표현력이 높은 순서로 웹 구조, 격자 구조, 나무 구조, 순차 구조 순으로 배열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웹 구조, 나무 구조, 격자 구조, 순차 구조 순으로 배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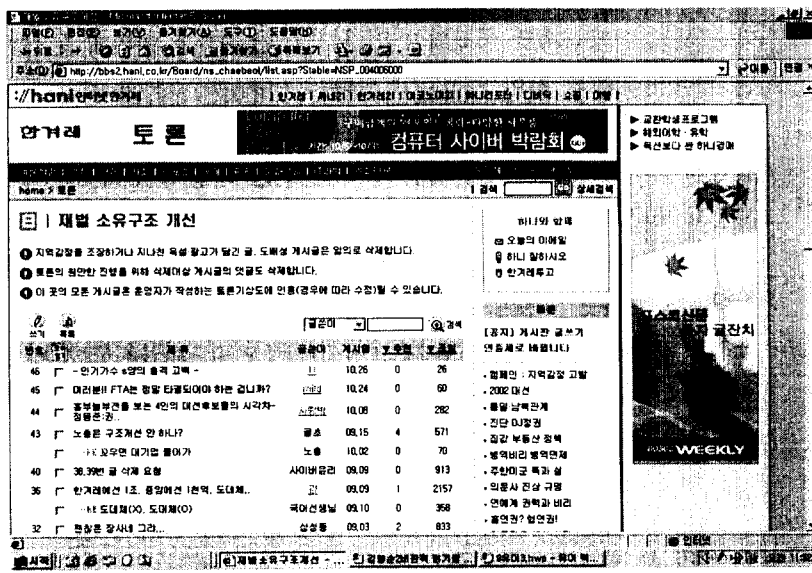
9) <그림2>는 <그림1>의 주제별 토론을 클릭한 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재벌 소유구조 개선'이라는 주제로 정보 수용자들이 올린 토론문 목록이다.

10) 김희수(1995 : 154)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설계에서는 메타인지적 규제를 촉진시켜서 표층적 정보처리보다는 심층적 정보처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때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내용, 상태를 이해하고 사고의 과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계획, 수행, 점검, 평가, 수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림 1] 2002년 10월 29일자 인터넷 한겨레의 첫 화면



[그림 2] 인터넷 한겨레에 나타난 토론



### 3) 하이퍼텍스트와 읽기 방식의 변화

하이퍼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와 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하이퍼텍스트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하이퍼텍스트 이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의 수용자는 하이퍼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형태들 중에서 자신의 이해(읽기) 목적에 부합되는 텍스트를 선별하고 선별된 텍스트를 응집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하이퍼텍스트의 읽기가 기존의 읽기보다 한층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고 과정을 요하는 능동적인 읽기임을 뜻한다. 따라서 읽기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독자에게 하이퍼텍스트 읽기는 왜곡된 의미 파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읽기 능력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을 가져왔고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인터넷에서의 읽기 방식은 기존의 읽기 방식과는 다른 채널과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닐슨(1997)은 인터넷 문서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단어 하나 하나를 읽지 않고 페이지를 훑어보거나 관심있는 단어나 문장을 뽑아서 읽는 경향이 있다. 존 목스와 본인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79%가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글을 읽고 16%만이 단어 하나하나를 읽는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자가 기존의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언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자는 빈번한 손놀림(클릭이나 스크롤 바의 활용)을 통해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취사선택하면서 읽어나가기 때문에 적독(摘讀)<sup>11)</sup> 형태를 떨 수밖에 없고 속도 또한 빠르다.(이채연, 2002 : 207)

---

11) 이채연(2002)에서는 scan the page를 적독(摘讀)으로 번역하고 있다.

전통적인 독서의 방법으로 제시된 SQ3R<sup>12)</sup>법이 아직도 유용한 방법으로 각급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읽기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할 지라도 방법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인쇄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양 또한 엄청나게 많고, 다수의 인쇄 매체는 매체를 달리해서 인터넷 웹 문서 혹은 전자 도서(e-Book) 형태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전달하는 매체 언어 형태가 다르므로 교수-학습 현장에서도 읽기의 방법을 상황에 따라 바꾸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에 목차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읽게 하고,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비선형적(非線型的)으로 하이퍼링크된 문서를 따라가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스스로 검색, 발췌해서 읽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읽는 속독의 방법을 익히게 해야 한다. 또한 만화, 그림, 도표,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내용 전달의 시각 보조 자료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언어의 발달로 만화, 그림, 도표, 사진, 동영상 등이 보조 자료의 개념을

#### 12) 1단계: 훑어보기(survey) 단계

- 글의 제목, 소제목, 차례, 삽화 등을 보고 그 내용을 짐작하기
- 글의 처음과 끝을 읽고, 두 부분 사이의 내용 짐작하기

#### 2단계: 질문하기(question) 단계

- 제목을 질문으로 바꾸어 보기
- 훑어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글의 중심내용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묻기

#### 3단계: 자세히 읽기(read) 단계

- 글을 차분히 읽으며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파악하기
- 중심 내용이나 자신이 제기한 질문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읽기
-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 적기
- 각 문단의 핵심, 단어, 구절 적기

#### 4단계: 되새기기(recite) 단계

- 글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 각 문단의 핵심 어구로 전체 내용 재구성 하기
- 필자의 의도나 목적 파악하기
- 읽은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 5단계: 다시 보기(review) 단계

- 글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
-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과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넘어 '시각 언어'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 곧 시각 자료도 어떤 메시지를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언어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읽기 방식의 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읽기 방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 매체에서는 쪽(page)이동의 선형적 개념</li> <li>· 축자적인 읽기와 이해의 과정</li> <li>· SQ3R법 강조(그외 이론 생략)</li> <li>· 만화, 그림, 도표, 사진, 동영상 등은 시각 보조 자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문서에서는 쪽의 개념보다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방식으로 이동하는 비선형적 개념</li> <li>· 텍스트의 이해 과정 이전에 보고 판단하는 직관적인 문식(文識) 능력</li> <li>· 선독, 발췌독, 속독의 필요성</li> <li>· 만화, 그림, 도표, 사진, 동영상 등은 시각 언어</li> </ul>
--	---	---

웹이 등장하면서 웹의 텍스트 양식인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의 텍스트 양식이자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양식이 되었다.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하이퍼텍스트와 전자 테크놀로지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전자 텍스트의 한 유형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둘째, 지면을 통해서도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적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웹의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이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견해를 따르기로 하겠다.

#### 4) 읽기 교육 개념의 재설정

##### 가. 독자의 문제

하이퍼텍스트는 능동적인 독자 즉 필자의 자격으로서 읽기의 기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독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를 읽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필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연결을 첨가하거나 읽고 있는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덧붙일 수도 있다. 하이퍼텍스트가 창안된 이후, 모든 독서 행위는 잠재적인 쓰기 행위가 된다. (박여성, 2001 : 34) 그러므로 랜도우(Landow, 여국현 외 역, 2001 : 88)에서는 하이퍼텍스트에서 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독자라는 용어 대신에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신조어인 생비자(生費者)나 구성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견해도 있다.

#### 나. 읽기 교육의 대상과 교육 내용

모든 텍스트를 관계의 망 속으로 삽입시키는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비연속적인 독서와 사고를 허용하기 때문에 책의 이해와는 매우 다른 이해 결과를 생산한다. 책을 대상으로 한 읽기가 책이라는 고정된 구현물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하이퍼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읽기는 현재 선택한 텍스트 구현물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이해는 독자마다 각기 다른 구현물을 선택하여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적 나눔을 통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교육적으로 독서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적 나눔을 통한 하이퍼텍스트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해 교육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할 수 있다. 읽기 대상을 형식적 측면의 텍스트, 내용적 측면의 텍스트, 맥락, 필자, 독자 등으로 범주화하여 지도 내용의 범주를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용어인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를 재정의한 후에 '이해, 비판, 의사 결정'에 이르는 이해 과정을 '독자의 텍스트 이해의 단계, 독자의 현실 인식을 동반한 비판의 단계, 독자의 자기화의 단계'로 설정하고, 또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비판 중심의 읽기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한 대안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읽기',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화를 위한 읽기'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읽기라는 언어 활동이 근원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의미를 획득하는 활동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읽기 차원,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화를 위한 읽기 차원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읽기 교육의 대상과 지도 내용

읽기단계 읽기대상	독자			독자간 상호작용	
	지식 (텍스트 이해)	기능 (독자의 현실 인식을 동반한 비판)	태도 (독자의 자기화)	창조적 상호작용	삶의 변화 자기화
형식적 측면의 텍스트					
내용적 측면의 텍스트					
맥락					
필자					
독자					

하이퍼텍스트의 읽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사고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독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향유까지 포함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기 교육이 개인의 교수·학습 행위를 뛰어넘어 사회적 교수·학습 행위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읽기 교육 모델로 제시하겠다.

#### 다. 인지 구조의 변화

사고의 구조 자체는 연쇄적이지 않다. 오히려 사고의 구조는 상호 연관된 관념들 사이의 체계이며 어떤 관념도 다른 어떤 것에 선행하거나

후행하지 않는다. 그 관념들을 선형적 연쇄구조로 조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선택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박여성, 2001: 40)

박여성(2001)에서는 하이퍼텍스트의 논리와 디지털 패러다임이 우리의 학습과 상호작용, 노동과 유희의 방식을 바꾸는 가운데 우리의 인지구조의 조합 방식을 재편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선형적인 하이퍼텍스트가 우리의 인지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다만, 하이퍼텍스트는 인간의 머리 속에 있는 인지구조를 표현하기에 편리한 도구이며, 능동적인 지식 습득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라는 이해가 일반적이다.

하이퍼텍스트는 하이브리드<sup>13)</sup>적 사고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적 사고는 비판적 이해를 통한 창조적 사고의 도출을 의미하는 종합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언어사용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고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이브리드적 사고가 무엇인지, 기존 사고력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 라. 필자의 문제

필자와 독자의 분리는 바르트(Barthes)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Landow(1997 : 16)에 따르면 바르트는 '읽기 텍스트'와 '쓰기 텍스트'가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와 대응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읽기 텍스트는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정전'개념이 강한 텍스트로서 인쇄 텍스트에 해당한다. 하지만 쓰기 텍스트는 '쓸 수 있는 텍스트', 또는 '쓰기를 위한 텍스트'로서, 필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텍스트들을 비연쇄적인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하이퍼텍스트가 이에

13) 하이브리드란 원래 생물학적으로 집돼지와 멧돼지의 혼종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잡종'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두 개 이상의 기술이나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하여 복합·상승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든 구조나 물건, 경영 방식 등을 일컫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해당한다. 쓰기 텍스트에서는 필자가 구성한 의미를 독자가 재구성함으로써, 독자가 필자가 되는 상황에서 독자와 필자의 개념적 구분은 모호해진다. 즉,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읽기 교육의 모델 구안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읽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 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읽는다.
- 표현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 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에서 필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sup>14)</sup>에 대한 독자의 관계 속에서 읽기를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독자가 정보를 찾으며 재조직하는 단계까지만 교육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넘어 지식과 지혜의 단계로 종합화하고 세계 속에서 정보의 효용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텍스트 자체에 대한 평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의 역할과 효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읽기의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의 평가와 판단이라는 개인이 기준이 되는 텍스트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독자와 또 다른 독자와의 관계, 독자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세계와의

---

14) 매체 읽기와 관련하여 하이퍼텍스트까지 포함한 것으로 본다.

관계가 기준이 되어 텍스트를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자의 배경지식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바람직한 읽기를 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데이터와 정보, 지식, 지혜로 이어지는 이해 단계를 5단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알기-따지기-쓸모있게 만들기-언어내기-부추기기 등 5단계의 이해 과정은 사고력 신장이라는 국어교육의 목표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볼 때, 첫 번째 단계는 알기(사실적 사고)이다. 데이터나 정보를 아는 차원이며 사실적 사고로 반응하게 되는 단계에 속한다. 수용자가 데이터와 정보를 접하게 될 때, 태도와 인지적 측면의 이해 단계를 거치게 마련인데 알기 단계에서부터 태도와 인지적 측면의 양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따지기(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상상적 사고)이다. 데이터와 정보를 비판하거나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지식을 만들어 내는 단계의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상상적 사고 등이 작용하여 반응을 하게 되고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쓸모있게 만들기(창조적<sup>15)</sup> 사고)이다.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가 작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언어내기(하이브리드적 사고<sup>16)</sup>) 단계이다.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종합적인 흐름과 연속적인 상황 하에서 새로운 흐름을 읽어 내고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차원의 사고력을 뛰어넘어 모든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며 지혜로 승화하는 단계의

15) 창의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에 대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있다. 국어사전(naver 국어사전 검색)에 의하면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착상)이나 의견을 생각해 내는 특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생각과 의견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적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생각이나 의견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출물에 초점을 두고 창조적 사고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16) 관계적 사고나 종합적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창조적인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적 사고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정보와 지식의 경영 능력을 키우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부추기기(행동하기) 단계이다.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적 사고가 작용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다섯 단계로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읽기 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표】 읽기 교육의 5단계 모델

단계	단계명	사고력 및 행동과의 관계	데이터에서 지혜까지의 과정
1단계	알기	사실적 사고	데이터, 정보
2단계	따지기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상상적 사고	정보, 지식
3단계	쓸모있게 만들기	창조적 사고	지식
4단계	언어내기	하이브리드적 사고	지식, 지혜
5단계	부추기기	행동하기	지혜

하이퍼텍스트는 결국 자신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지혜를 얻어내고 자기화하는 것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유해한 대상으로서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활용하지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비판을 넘어 창조로 바라보고 활용하지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옥인(2001a)에서는 정보와 데이터로 분해된 지식을 다시 꿰맞추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트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보고 분해된 정보를 의미있는 지식으로 결합시키는 능력이 비트 시대에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주입식 학습에서 발견과 경험의 학습으로의 전환, 연역적 사고에서

통합과 판단의 사고로의 전환, 지식이 선행되는 행위 양식에서 행위가 지식을 유도하는 양식으로의 전환 등을 하이퍼텍스트가 가져온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으로 기존의 읽기 교육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으로 읽기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읽기 교육의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을 고찰하고, 읽기 교육의 모델을 구안함으로써 읽기 교육의 개념이 창조적 사고와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쪽으로 확장되고, 독자간 상호작용에 의한 이해와 행동적 반응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 이 논의를 검증하기 위한 하이퍼텍스트의 각 영역별 분석과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읽기 교육과정 구안,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니아스 도쿠마루, 김재봉 역(2000), 디지털 혁명과 매스미디어, 나남출판.
- 김도남(2001),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읽기 지도를 위한 전제, *한국어문교육*10(1),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김양은(2000), 「매체 발달에 따른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 *언론연구* 10집,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 김희수(1995), 「하이퍼텍스트 학습 상황에서 메타인지, 인지오류, 인지 오류 감지 및 하이퍼텍스트 구조가 저작체계 학습에 미치는 효과」, *교육공학연구* 11(1), 한국교육공학회.
- 남혜경(1999), 「담론적 언론 기능 부활의 가능성-웹진」, 연세 커뮤니케이션즈10,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라도삼(1997), 「가상공간의 담론체계와 하이퍼텍스트」, *언론연구*6(1),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 목영해(2001), *디지털 문화와 교육*, 문음사.

- 박여성(2001), 「미디어폴리스 시대의 텍스트과학」, 한국텍스트과학의  
제과제, 도서출판 역락.
- 배식한(2000),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 백옥인(2001a),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과 지성사.
- 백옥인(2001b), 「디지털 시대의 지식과 교육」, 사이버교육의 이해, 한  
국교육개발원, pp30-42.
- 사이버문화연구소(2001), Cyber is...-네트에서 문화 읽기-, 역사넷.
- 안정임(2002), 디지털시대 미디어교육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언  
론학회 학술 위원회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 윤준수(2000),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커뮤니케이  
션북스.
- 이재현(2000),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채연(2002), 「인터넷을 활용한 국어과 쓰기 지도의 수업모형 구안과  
그 효과」,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임천택(2002), 「하이퍼텍스트의 특성과 작문교육적 의의 고찰」, 한국어  
문교육11(1),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정지영(1998),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구조의 레토릭적 패턴 -설명형  
담론과 서사형 담론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0), ICT 활용 교수 학습 지도안 자료집,  
KERIS.
- 한성인(2001),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구조  
적 개요제시가 독해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Brown, J.S.(2000), "Growing up digital", *Change* 32(2), pp10-20.
- Colkin, J.(1988), Hypertext: An introduction and survey, In  
*Greig, I.(Ed.), 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 A Book of Readings*, San Mateo, CA :  
Morgan Kaufmann Publishers.
- Joyce, M.(1995), *Of Two Minds : Hypertext Pedagogy and*

- Poetic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ndow, G.P.(1997) *Hypertext2.0*,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andow, 여국현 외 역(2001), 하이퍼텍스트 2.0 - 현대 비평이론과 테크놀로지의 수렴, 문화과학사.
- McLuhan, M. 박정규 역(1997), 미디어의 이해, 박영출판사.
- Nielsen, J.(1997), How users read on the web.  
<http://www.useit.com/alertbox/9710a.html>.
- Ong, W.J. 이기우 · 임명진 역(1997),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Seyer, P.(1991), Understanding Hypertext : Concepts and Applications, *Blue Reidge Summit*, PA: Win- dcrest Books.

〈초록〉

##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읽기 교육 개념의 재설정

권 순 희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읽기 교육에 대한 개념은 다음 영역에서 재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독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능동적인 독자 즉 필자의 자격으로서 읽기의 기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독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읽기 교육의 대상과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이해는 독자마다 각기 다른 구현물을 선택하여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적 나눔을 통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인지 구조의 변화이다. 하이퍼텍스트는 하이브리드적 사고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이브리드적 사고는 비판적 이해를 통한 창조적 사고의 도출을 의미하는 종합적인 사고이다.

넷째, 필자의 문제이다. '읽기 텍스트'와 '쓰기 텍스트'가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와 대응 관계에 있다. 읽기 텍스트는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정전개념이 강한 텍스트로서 인쇄 텍스트에 해당한다. 하지만 쓰기 텍스트는 '쓸 수 있는 텍스트', 또는 '쓰기를 위한 텍스트'로서, 필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텍스트들을 비연쇄적인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하이퍼텍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쓰기 텍스트에서는 필자가 구성한 의미를 독자가 재구성함으로써, 독자가 필자가 되는 상황에서 독자와 필자의 개념적 구분은 모호해진다.

이해 교육에서 읽기 대상을 형식적 측면의 텍스트, 내용적 측면의 텍스트, 맥락, 필자, 독자 등으로 범주화하여 지도 내용의 범주를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읽기 단계로 '이해, 비판, 의사 결정'에 이르는 이해

과정을 '독자와 텍스트 이해의 단계, 독자의 현실 인식을 동반한 비판의 단계, 독자의 자기화의 단계, 독자간 상호작용 단계'로 설정하였다.

【핵심어】 하이퍼텍스트, 하이브리드적 사고, 읽기 교육, 독자간 상호작용

<Abstract>

## Reestablishment of Definition of Reading Comprehension in Hypertext

Kwon, Soon-hee

The definition of reading comprehension in hypertext should be reestablished as followings.

First, hypertext has relation to the active readers, who can choose reading hypertext as a writer.

Second, the objects and contents for reading education are changed. The comprehension in hypertext means that every reader chooses the text by oneself and understands it and that comprehends it through communication in reading community is necessary.

Third, hypertext is bringing about the hybridic thinking. Hybridic thinking is a complex process leading to creative thinking through critical comprehension.

Fourth, The relation between 'reading text' and 'writing text' is similar to that between 'printing text' and 'hypertext'. Reading text is a printing text which the reader can read but not write anything. However, writing text is a writable text or a text for reading. Hypertext is a writing text which the writer discontinuously reads the text connected through network. In writing text, reader reorganizes the text which writer composes. Therefore, the division of writer and reader is obscure in such case that reader becomes writer.

**【Key words】** hypertext, hybridic thinking, reading comprehension education, reader's communication